

(06180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, 섬유센터빌딩 16층

[문의] 사업1부 김태완 과장 02-528-0114 twkim@koreafashion.org

성래은 한국패션협회장, "민간 투자 연계로 K-패션 스케일업 본격화"

- 2025 K-패션 데모 데이 참가 브랜드 '뮤제', '아코크', 실제 민간 투자 유치 성공 -

- 한국패션협회(회장 성래은)는 지난해 투자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패션 브랜드 뮤제(대표 이주현)와 아코크(대표 이수빈)가 올해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 - 이번 성과는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 지원으로 추진 중인 K-섬유패션 협력강화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의 투자 연계 프로그램이 실제 민간 투자로 이어진 사례로, 성장 가능성이 높은 K-패션 브랜드를 발굴하고 민간 투자와 연결하는 지원 체계의 성과를 보여준다.
- 이러한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7.22(수)~7.23(목) 양일간 개최한 「2026 K-Fashion Connect」에서 투자 연계 프로그램, K-패션 데모 데이를 확대 운영했다.
 - 올해 데모 데이에선 패션 브랜드 3개사와 시그나이트, 비엘티엔파트너스, F&F파트너스 등 투자기관 13개사가 참여해 브랜드 IR 발표와 1:1 투자 상담을 진행했으며, 협회에서는 행사 이후에도 후속 투자 검토를 지속 연계해 실제 투자 성과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 협회는 단발성 투자 연계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발굴부터 투자 연계, 글로벌 성장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-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이기도 한 성래은 회장은 “이번 투자 유치 사례는 정부의 투자 연계 프로그램이 실제 민간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”라며, “앞으로도 투자와 컨설팅을 다각도로 연계한 성장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K-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2026 K-Fashion Connect 행사장내 「K-패션 데모 데이」 (7.23(목), 코엑스 2층 더플라츠)